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15일(일)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 위생정책팀장 전희순 ☎440-2761 • 담당자 박미숙 ☎440-276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음식문화개선사업, ‘대통령상’ 영예
 - ‘식품안전의 날’ 맞아 전국 최고기관으로 선정 -
 - 덜어먹기 식기구 제공, 안심식당 지정 등 다방면 사업추진 성과 -

인천광역시는 ‘제21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자발적 참여 유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방역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연계한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정책 개발과 실천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음식점 1,381개소에 덜어먹기 식기구 제

공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위한 컨설팅, 간담회,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율 인하 △안심식당 1,308개소 신규지정 및 사후관리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1,308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수기관 평가에서 상·하반기 연속 ‘전국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외식산업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음식문화 선도도시로서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 5월 13일 ‘제21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aT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인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